



작품으로 변모한 공장 기둥. '사라져가는 문자들의 정원'



지난 2014년 3월 개관한 경기도 안양시(만수구 석수동) 김중업박물관은 (주)유유산업 안양공장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한국 건축계의 1세대인 김중업의 건축 철학이 깃들어 있다.

하늘과 땅 사이 '또 다른 자연'으로 한국 1세대 건축가 예술혼 피어나다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12〉 건축가 김중업과 안양



주한 프랑스대사관 모형물

“건축이란 희열을 삶의 찬가를, 노래와 춤과 시와 로망을 던져주는 것. 작가가 정성껏 꾸민 것을 시간이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것. 사람이 반기고 아끼고 그러다가 하루는 신의 소유물이 되는 것. 슬모가 있고 아름답고, 의젓한 것이 다시 금 대자연 속에 되돌려지는 것. 그러기에 인간이 남긴 기호들이 상징의 세계 속에 승화되는 것.”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은 생전에 그렇게 말했다. 그에게 건축은 단순히 건물과 이를 짓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삶의 신비와 조화가 되새겨지는 일이다. 나아가 삶과 노래, 시와 로망, 자연과 기호가 깃드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김중업,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이자 프랑스 거장 르 코르뷔지에를 사사한 첫 번째 한국인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근대건축의 기능주의와 표현주의를 결합한 세계적 건축가다. 르 코르뷔지에를 사사했다는 것은 김중업 건축이 차지하는 위치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주한 프랑스대사관, 삼일빌딩, 서강대 본관, 부산대학교 본관, 유엔기념공원 정문, 외환은행 본점 등... 김중업의 건축은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이다. 그는 프랑스 건축과 우리 전통의 건축을 융합한 새로운 방식을 구현했다. 고유의 건축 언어를 토대로 유럽의 조형미를 덧입힌 그의 건축은 독특한 아우리를 발한다.

경기도 안양시 만수구 석수동 안양예술공원에는 김중업 박물관이 있다. 2014년 3월 개관한 이곳은 (주) 유유산업 안양공장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지난 1959년 김중업이 설계했다. 유유산업 공장은 공장 건물과 조각 작품을 접목한 김중업 초기 작품에 해당한다. 원형의 정문 건물과 기다란 모양의 골목은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고 정교하다.

“이곳은 2006년까지 제약회사인 유유산업 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2007년에 유유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자 안양시가 247억 원을 들여 이곳을 매입했지요. 인근의 안양예술공원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었지만, 당시에 고려시대의 절 터인 안양사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공장건물을 지을 당시만 해도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았나 싶어요.”

성순이 해설사의 설명이다. 성 해설사는 이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에 걸친 발굴조사로 복합문화공간 계획이 지연되자,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김중업박물관(가칭)으로 활용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서는 안양의 근원을 알 수 있는 안양사지관과 현재 역사가 집약된 김중업박물관을 내세움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문화 도시를 표방한다. 고려시대에 건립된 안양사는

평양 출신 김중업이 1959년 설계한

유유산업 안양공장 복합문화공간 추진

고려 유물 발견돼 공장 리모델링 선택

건축 문화행사로 전국에서 벤치마킹



안양사지에서 발굴된 유물.

당시로는 큰 절이었다고 한다. 글씨가 새겨진 기와조각(명문와편)과 흙을 빚어서 층층이 쌓은 전탑이 이를 증명한다.

“안양(安養)의 지명 유래는 후삼국시대 태조 왕건과 관련이 있어요. 어느 날 왕건이 삼성산에서 쉬고 있는데 능정(能淨)이란 승려를 만나게 됩니다. 능정은 이곳에 절을 세우면 만년 동안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건이 이를 듣고 절을 세운 것이 안양사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내려옵니다.”

성 해설사는 절 이름인 안양(安養)은 불교의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지칭한다고 덧붙인다. 그 이상의 세계가 바로 안양세계(安養世界), 안양정토(安養淨土)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구 60만의 안양시는 극락정토를 상징했던 안양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중업과 안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혹자는 김중업의 생가가 필경 안양시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김중업의 고향은 평양이다. 김중업은 평양중학교를 졸업하고 요코하마고등공업학교 건축학과에 진학해 파리미술대학

출신 나가무라 교수로부터 건축을 배운다. 이후 다양한 건축 관련 실무를 거쳐 1947년에는 서울대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다.

안양에 김중업박물관이 터를 잡게 된 사연은 이렇다. 그가 설계한 유유산업 공장이 안양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건강부회(健強會)·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임)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건축가(예술가)를 귀히 여기는 지자체의 남다른 철학이 숨어 있다. 모두가 문화를 내세우지만 정작 건축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은 없다는 데에 착안한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김중업박물관은 '안양APAP'(안양공예예술프로젝트) 일환에서 태동했어요.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안양APAP는 '안양의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중업박물관 옆 건물인 문화누리관을 비롯해 안양예술공원 일대에서 2년(현재는 3년)에 한번씩 페스티벌이 열리지요.”

김중업 해설사는 타도시의 문화행사나 다른 프로젝트에 남다른 자부심을 표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자주 들른다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문자들의 정원'들을 비롯한 박종배 조각가의 모자상, 파이오니어상 등은 박물관이 자랑하는 작품들이다.

김중업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맞이해 지난 봄(3월 27일~5월 10일) 특별 기획전을 개최했다. '여기, 이어지다 : 한국·프랑스 건축전' 주제로 열린 기념전은 김중업의 건축유산을 돌아보고, 프랑스 건축과 한국 건축의 교류 및 발전 과정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김중업에게는 망명이라는 시련의 시기도 있었다. 와우아파트 붕괴, 성남시 재개발 정책 비판으로 미운털이 박힌다.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집을 상징한 김중업에게 당시의 정부 정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는 그를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어 출국시킨다.

위기는 기회였다. 프랑스에서 그는 르코르뷔지에 재단이사로 선임돼 다양하면서도 실험적인 작품을 남긴다. 그는 한국 전통에 깃든 시정을 현대적 감각으로 선보였고 프랑스대사관 설계로 프랑스정부로부터 국가공로훈장과 수발리에(기사) 칭호를 받기에 이른다.

길지 않은 생이었지만 그는 건축가로서의 울곧은 삶을 살았다. 그에게 건축은 “생애를 불태우는 뚜렷한 의지와 작업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건축 철학의 기저에 자연과 생명이 깃든 이유다. “건축이란 아름다워야 한다. 하늘과 땅 사이의 또 다른 자연이다.”

/안양=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SINCE 1990

홍스카이즈 가구빌딩